

지역경제 봄바람 살랑...서비스업 기지개·소매판매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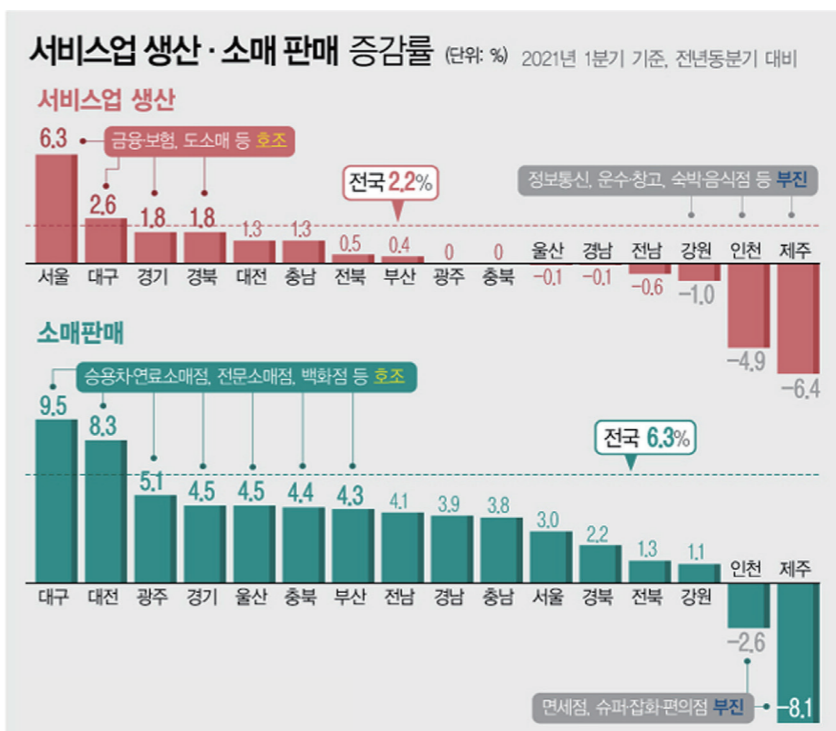
서울 3분기 연속 증가 등 8개 시도서 서비스업 ↑ 주식거래 늘면서 '금융·보험' 호조로 증가세 견인 '숙박·음식점' 등 거리두기 영향 취약 업종 부진 제주·인천 제외한 나머지 시도 소매판매도 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서비스업 생산 실적도 개선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 실적은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2.2% 증가했다.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서울(6.3%)을 비롯해 대구(2.6%), 경기(1.8%), 경북(1.8%), 대전(1.3%), 충남(1.3%), 전북(0.5%), 부산(0.4%) 등 8개 시도는 증가했다. 광주와 충북(이상 0.0%)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6.4%)와 인천(-4.9%)은 부진을 거듭했고, 강원(-1.0%), 전남(-0.6%), 울산(-0.1%), 경남(-0.1%)도 회복세가 더뎠다. 전반적으로 금융·보험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식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소비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도 소매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오르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던 부동산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줄면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울도 0.1% 증가에 그치는 등 다른 시도 역시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숙박·음식점과 예술·스포츠·여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려움이 이어졌다. 작년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줄었던 소매판매는 올해 1분기 반등했다. 제주(-8.1%)와 인천(-2.6%)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모두 판매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고충을 겪은 대구(9.5%)가 가장 증가폭이 컸다. 대전(8.3%), 광주(5.1%), 울산(4.5%), 경기(4.5%), 충북(4.4%), 부산(4.3%), 전남(4.1%)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백화점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서울(3.0%)도 백화점 판매(24.2%)가 급증하며 2019년 4분기(6.8%)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와 인천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이어지며 면세점 판매에 여전히 부진하며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인천은 면세점 감소폭이 -93.1%에 달했고, 제주 역시 -35.6%나 줄었다. 이만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감소폭이 워낙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동시에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개별소비세 인



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히"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선풍기 보고 있는 시민들. 이른 더위가 찾아온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롯데마트점에서 시민들이 선풍기를 보고 있다.

광주시, 소비자 참여 전기절감 서비스 실증

7개 아파트 6240세대 지능형계량기 등 무료 설치 참여율에 따라 다양한 편익 제공...전기요금 절약

"아깁e 앱으로 전기요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시가 스마트폰에 소비자 스스로 '아깁e' 앱을 설치한 뒤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 확인하고 출석체크, 정보등록 등으로 쌓인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시가 지원하는 국책과제인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의 하나로, 주관기업인 SKT 등 17개 기업이 참여하며 지난해 8월 공동주택 7개 단지 6240세대를 실증단지로 선정했다. 7개 실증단지는 본촌 현진에버빌,

상무 버들1단지, 신창도시공사, 하남 2지구 다사로움 1단지, 아람마을휴먼시아 3단지, 광주역 다사로움, 점단2 휴먼시아 1단지 등이다. 단지 내 수용가가 전력사용량 절감과 전력량 거래,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결합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에 참여하고 참여율에 따라 전기사용량과 요금정보 제공 등 크고 작은 편익을 제공받는 신개념 전기요금 서비스다. SKT 등 참여기업은 실증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사물인터넷(IoT) 전력량계, 스마트플러그, 아깁e 앱을 무료로 설치해 전기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실증세대 참여와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추가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사도 할 계획이다. 시의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지원사업은 앞으로 민간전력시장 개방을 고려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증사업으로 실증단지 내 각 세대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실증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를 지향하는 광주가 실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실증단지 내 주민들이 그린요금제 서비스에 적극 참여해 향후 국가전력서비스 정책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대형 모델 출시

코웨이는 넓은 공간의 실내 공기가 지 케어해주는 '노블 공기청정기(AP-3021D/권장사용면적 100㎡)' 대형 모델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강력한 청정 성능과 필터 시스템으로 청정면적을 키웠다. 이번 대형 모델 출시로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시리즈는 ▲50㎡(15평형) ▲67㎡(20평형) ▲100㎡(30평형) 등 총 3가지 평형대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 제품은 생활 환경에 맞춰 공기 관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더블에어필터가 위아래로 2세트 총 4개 탑재됐다. 알러젠필터, 팻필터, 미

세먼지집중필터, 매연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필터 등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최대 4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알러젠필터는 집먼지진드기나 반려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팻필터는 반려동물 배변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황화수소)을 약 99%까지 제거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코웨이는 노블 공기청정기 대형 모델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까지 렌탈료 할인 및 6개월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적용 렌탈료는 ▲방문관리 서비스 선택시 월 5만1900원 ▲자가관리 서비스 선택시 월 4만8900원(6년 약정, 등록비 10만원 기



코로나로 돈 쓸 데 없어진 고소득층, 결국 '차' 바꿨다

KDI, 코로나 위기와 가계 소비 분석 5분위, 지난해 수 소비 27%나 늘려 5분위만 폭증, 3·4분위 '4~7%' 줄어 대면·비대면 다 줄었던 과거와 달라

지난해 고소득 가구가 자동차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창궐로 오프라인 쇼핑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겨 자동차처럼 큰 지출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 자료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지난해 내구재(한번 사면 오래 쓰는 재화) 소비를 19.6% 늘렸다. 이 중 자동차 등 운송 기구가 27.4%로 큰 폭을 차지했다. 가구·가전 등 소비는 6.5% 증가했다. 지난해 가계 총소비가 5.14% 감소하는 동안 가계 소비는 9.71% 줄었고, 비대면 소비는 4.39% 증가했다. 가계가 대면 소비가 위축되며 감소한 효용을 비대면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다가올수록 가계 소비 회복세는 빨라지

동차 등 운송 기구의 실제 소비 증가는 15.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덕상 KDI 경제전망실장 조덕상 총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등 비대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대폭 위축된 대면 소비를 완충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런 소비 행태는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세계를 뒤흔쳤을 때는 가계 총소비·대면 소비·비대면 소비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새로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 그래프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KDI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가계 총소비가 5.14% 감소하는 동안 가계 소비는 9.71% 줄었고, 비대면 소비는 4.39% 증가했다. 가계가 대면 소비가 위축되며 감소한 효용을 비대면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다가올수록 가계 소비 회복세는 빨라지



고, 비대면 소비는 조정된다는 전망이다. 조덕상 총괄은 "내구재·비내구재를 모두 포함한 비대면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구성 변화(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기저 효과도 반영되면서 모든 시나리오상 작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올해 비대면 소비 증감률은 대면 소비 충격이 빠르게 사라지는(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치 대비 0.5%p가량 낮아지고, 대면 소비 충격이 장기화하는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0.6%p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정부가 완화적 거시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가계 소비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민정기자

네이버, 왓패드 인수 완료...“세계 최대 웹툰·웹소설사 합쳤다”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이끌어갈 계획

세계 1위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가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를 완료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사가 탄생하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열린 이사회에서 왓패드의 인수 건을 결의한 이후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초 인수를 완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약 6억 달러(약 6600억원)에 왓패드 지분 100%를 인수했고, 이를 통해 웹툰, 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웹소설 사용자 1위 왓패드(940만명), 웹툰 사용자 1위 네이버웹툰(7200만명)을 합한 약 1억6600만명(월간 순 사용자 합산)의 사용자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작자, 창작물을 확보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창작자 약 570만명(2021년 4월 기준, 네이버웹툰 70만명 + 왓패드 500만명), 창작물 약 10억개(네이버웹툰 130만개 + 왓패드 10억개) 이상을 보유한 다양한 국가, 취향의 독자들을 만족시키고, 양질의 원천 콘텐츠를 통해 지식재산(IP) 비즈니스에서도 시너

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네이버웹툰의 검증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노하우, 수익화 모델을 기반으로 왓패드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진행할 예정이 다. 네이버는 2013년 유료보기, 광고, IP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PPS 프로그램(Page Profit Share Program)을 선보였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검증 받았다. 이러한 노하우는 방대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한 왓패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왓패드 역시 2019년 유료보기 서비스를 시작했고, 도서 출간, 영상화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수익에 각광을 노려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훌륭한 스토리텔링과 탄탄한 팬층을 가진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적인 원천 콘텐츠다. 향후 웹툰의 웹소설화, 웹소설의 웹툰화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글로벌 영상 사업을 펼치는 스튜디오N, 왓패드 스튜디오의 협업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총 167개(네이버웹툰 77개+왓패드 90개)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유나기자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과 왓패드는 다양한 혁신 기술 발전도 협력하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은 '자동 채색 및 펜선 따기' 기술로 창작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며 창작자의 허들을 낮췄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웹툰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방지하는 '툰레이더'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왓패드 역시 마신 러닝 기술 '스토리 DNA'(Story DNA)를 활용한 작품 추천을 적극 활용해 슈퍼 IP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한성숙 최고경영자(CEO)는 "왓패드는 훌륭한 이야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글로벌 커뮤니티로 새롭게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웹툰과 왓패드 간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이버웹툰 김준구 CEO는 "왓패드와 네이버웹툰의 결합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업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왓패드의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네이버웹툰의 정교한 기술, 다양하게 검증된 유료 모델과 만나서 전세계 사용자를, 그리고 창작자들에게 최고의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